이상기후…광양매실 대흉작

착과율 저조, 올 수확량 60%까지 줄 듯

상품성도 크게 떨어져…재배농가들 울상

올해 봄철 이상기후로 인해 광양지역의 매실 착과율이 저조해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매실 저온피해와 작황을 조사한 결과 품종과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평년에 비해 매실 착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하시기도 5월 기상상태에 따라 예년에 비해 3일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매실 작황이 좋지 못한 이유는 수정시기에 이상기후로 인해 일조량이 적은데다 ▲저온으로 인해 벌 등 수정곤충들의 활동 미비 ▲황사 등으로 인한 착과율 감소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품종별로는 꽃가루가 많은 남고·앵숙·실생 등 품종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듯 보이나, 꽃가루가 없는 백가하·옥영 등 품종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상면·진월면·옥곡면에서는 지대와 품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다압면에서는 백가하와 옥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시 매실면적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백가하 품종은 예년에 비해 50%이상 저조한 착과율을 보였으며, 21.2%를 차지하는 남고품종도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착과율이 낮아졌다는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매실농가들은 낮은 기온탓에 수정매개체인 벌 등의 활동부족으로 수정이 불완전하고 착과율마저 낮아져 올해 매실 수확량이 최대 60%까지 감소하고 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청매실농원 고유석 상무는 "개량종 박하하 매실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해 50~60% 까지 수확량 감소가 예상돼 5억~6억여 원의 영업손실이 우려된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100여 t을 생산했는데 현재 매실착과율을 지켜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이상 기온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을 기대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6일까지 매실 등 과수 동해(凍害)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전남도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지역은 지난해 2974농가가 1098ha에서 매실을 재배, 8494t을 생산해 290억원대의 소득을 올렸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김청수기자

GS칼텍스, 여수지역 인재육성 '요람'

15년간 초·중·고·대학생 6100명에 장학금 45억원 지급

GS칼텍스(대표 허동수 회장)가 15년간 초·중·고·대학생 6100여명에게 4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여수지역 인재육성의 요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GS칼텍스는 3일 여수산단내 GS칼텍스 여수공장 홍보상황실에서 제15회 GS칼텍스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여수지역 중·고교생 250명에게 1억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중학생(199명) 1인당 25만원, 고교생(51명)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장학증서가 부착된 장학통장과 함께 개별 지급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중·고교생의 경우 상위 4%이내 성적 우수학생들 가운데 여수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대학생의 경우 지원자 모집부터 면접·최종 선발에 이르기 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성적뿐만 아니라 나눔과 봉사활동 실천사례까지 고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GS칼텍스 생산본부장 전상호 사장과 김국진 노동조합위원장 등 회사관계자와 전남대 김준옥 교수 등 GS칼텍스재단 이사, 여수교육청 장애신 교육장, 여수지역 중·고 교사, 학생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GS칼텍스는 지난달 전남대 여수캠퍼스 재학생 16명에게 총 8000만원, 여수지역 수산업종사자 자녀 213명에게 모두 1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전달한 바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지역 인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장학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LG화학, 불우 아동·청소년 '보금자리'

단위공장별 사회봉사단 여수지역아동센터 11곳 후원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유근창 부사장)이 지역 불우 아동과 청소년들의 보금자리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전사적으로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LG화학 여수공장에 따르면 여수시 자원봉사센터의 협조 하에 관내 32개(이용인원 1186명) 지역아동센터 중 11개 단위공장 사회봉사단이 각 1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총 11개 지역아동센터(492명)에 대한 후원을 약속했다.

각 센터에 대한 후원활동은 ▲시설지원 ▲기자재지원 ▲학습지원 등으로 나뉜다.

시설지원은 아동센터 건물에 대한 천정 방수·도색·공부방 도배·장판교체 등이고, 기자재 지원은 TV와 빔 프로젝트·복사기·냉온풍기 등 가전제품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 학습지원은 미술과학교실·사물놀이〈사진〉나 하모니카·드럼 등의 연주법을 배우는 음악교실 등이다.

이밖에 수영·축구·스키 등 운동을 배울 수 있는 동아리교실 운영도 한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단순한 기부행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시켜 차별화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실 제 특수수지·BPA공장 사회봉사단은 지난달 16일 농아원 생활인 문화체험행사에 국동 소재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0여명을 참여시킨바 있다.

LG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는 "지역 아동들을 위한 이같은 지원·후원활동은 지난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1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행사 등 경비 절감

고흥군 10억 마련

일자리 창출 투입

고흥군은 최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3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고흥군은 행사와 축제 등 경상경비 10억원을 절감해 추경예산을 편성, 올해 말까지 ▲명품 녹색길 조성 등 공동체 일자리사업 ▲녹색성장 일환인 생활쓰레기 자원화사업 ▲청년실업자 실무경험 제공사업 등 9개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연초부터 추진해온 희망근로와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을 합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모두 93억원을 투입, 27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고흥군 담당자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청·장년층과 취약계층 등 실업대책을 위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 자체예산을 절감 편성한 만큼 사업참여자들이 희망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최고 녹차를 찾아라 지난 3일 '보성녹차대축제' 행사일환으로 열린 한국명차 선정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출품된 녹차의 찻물색과 향기·맛·외형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21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보성 다도락다원(대표 조현곤)이 대상(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성군 제공〉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여수시 거북선축제 기간

제44회 진남제전 거북선대축제를 맞아 여수시와 수산물품질 검사원, 여수해경이 지난 4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역축제와 주변 명소를 찾아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단속 대상업체는 관광지 주변 선물용 수산물 판매업소와 횟집을 비롯해 재래시장·가공업체 등이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는 수산물 중 국산 및 수입산의 처리 형태를 불문하고 활어·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한 모든 품목과 조미품·훈제품·어육제품·통조림·병조림·젓갈류 등 가공품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 또는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적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6일까지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제44회 진남제전·여수거북선대축제'를 개최하며, 5일에는 '세계 불꽃경연대회'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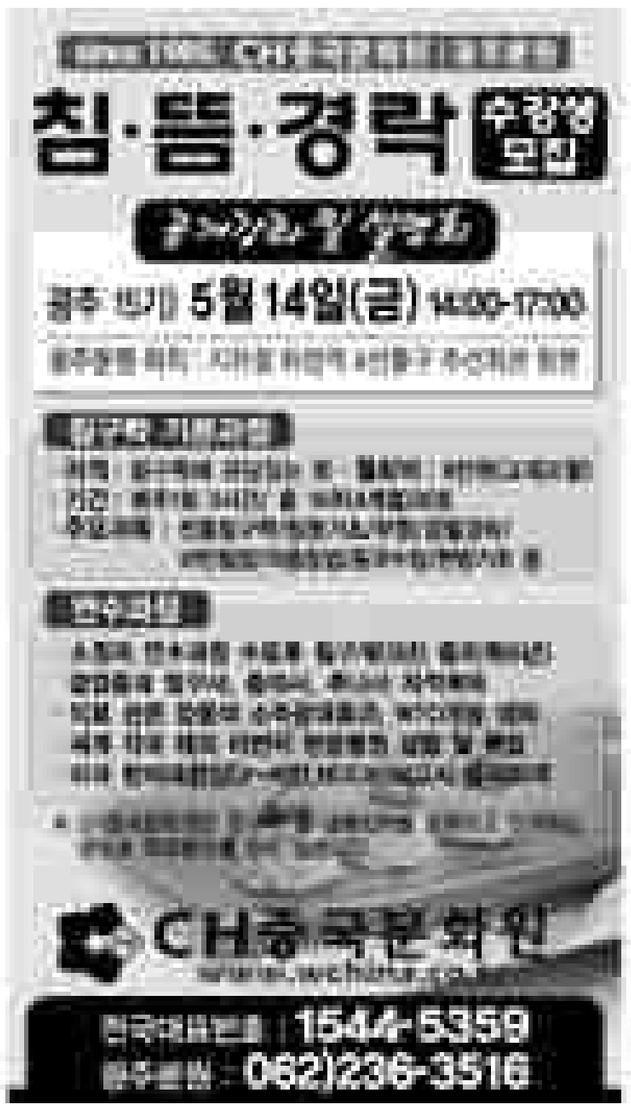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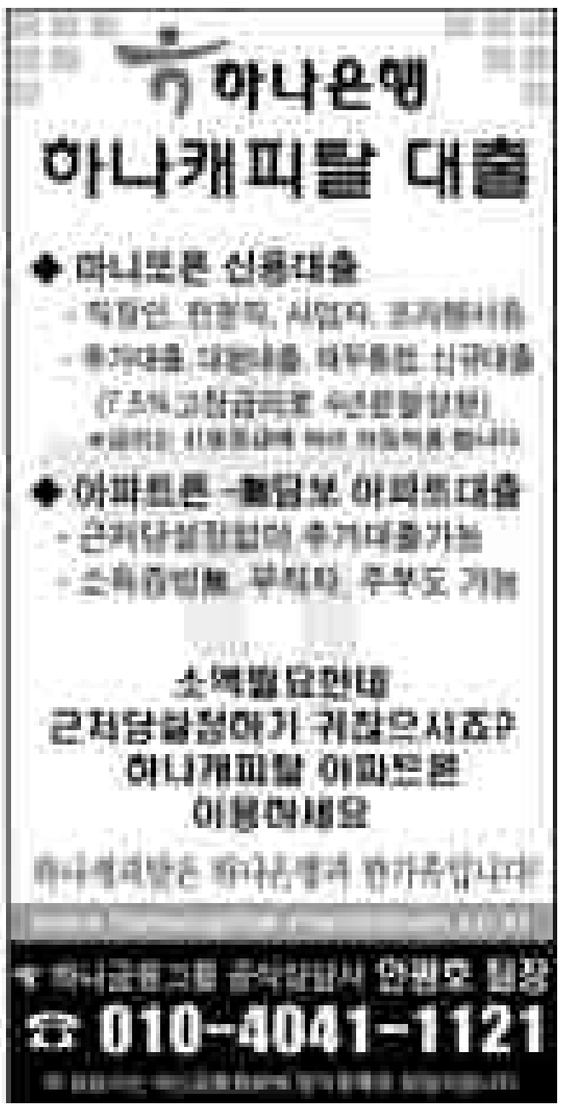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곡성군 토지거래 이용실태 전면조사

곡성군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토지거래 이용실태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토지의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주택의 경우 매수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농지의 경우는 미이용 방치·타목적 이용 등 현장조사와 주민등록·직불금 수령현황 등 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군은 위반자에게는 3개월간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토지취득 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